

새로 나온 책

가짜뉴스 판치는 시대, 현실을 직시하라

‘지난 20년간 세계 인구에서 극빈층 비율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오늘날 전 세계 아동 중 예방접종을 받은 비율은 얼마나 될까?’, ‘전 세계 인구 중 어떤 식으로든 전기를 공급받는 비율은 몇 퍼센트일까?’



팩트풀니스

한스 로슬링, 올라 로슬링, 안나 로슬링 뢰른룬드 지음
이창신 옮김/김영사

위 세 가지 질문에 모두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면, 당신은 확증편향에 빠진 것일 수도 있다. 통계학자이자 공중 보건 전문가라는 독특한 이력을 가진 저자는 정확한 수치를 들이밀며 사람들의 고정 관념을 깨부순다.

삶이 팍팍해진다든 푸념은 거짓이었을까. ‘팩트풀니스’(Factfulness·사실충실성)는 사실에 근거해 세계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태도와 관점을 의미한다. 바야흐로 가짜뉴스가 판치는 시대다. 저자는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현실을 직시하라고 조언한다.

2016년 태어난 아이는 1억 4100만 명이다. 같은 기간 사망한 아이는 420만 명이다. 백 명 중 세 명은 첫 번째 생일을 맞이하기 전 죽는다는 뜻이다. 과거와 비교해보자. 1950년 신생아 수는 9700만 명이

고, 사망한 아이는 1440만 명이다. 지난 66년을 놓고 보면 영아 사망률은 15%에서 3%로 12%포인트나 줄었다. 인상적인 수치를 다른 수와 비교하거나 나눠보면 정반대의 인상을 받게 된다.

책은 세계의 진짜 모습을 알리기 위해 극빈층 비율에서부터 기대 수명, 세계 인구 변동 추이, 아동의 예방접종 비율, 평균기온 변화 등 폭넓은 분야의 숫자를 다룬다. 최신 통계 데이터를 제시하고 이를 바라보는 올바른 견해를 소개한다.

474쪽. 1만9800원 / 김현정 기자 hik1@

지금 살고 싶은 집에서 살고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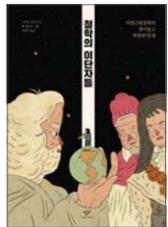
모나 솔레 지음/박명숙 옮김/부키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 집은 ‘사는 곳’이 아닌 ‘사는 것’이 돼 버렸다. 삶에서 집이란 어떤 의미일까. 사람들은 매일 집을 들고나지만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퇴보, 상승하는 이혼율과 급락하는 혼인율, 갑질 문제, 사회 계층과 세대 간의 이종 격차, 근로 노동 시간 논쟁 등 모두 ‘집’에서 시작되거나 관련 있다는 것이다. 그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저자는 문학, 예술, 철학 등 집을 둘러싼 모든 것을 날날이 파헤친다. 496쪽. 1만9000원

철학의 이단자들

스티븐 내들러 지음/이혁주 옮김/벤 내들러 그림/창비



스피노자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 스티븐 내들러와 만화가인 아들 벤 내들러가 함께 그려낸 서양 근대사상 탄생기. 갈릴레오에서부터 뉴턴에 이르기까지 ‘이단자’를 자처한 17세기 사상가들의 출현과 서양 근대철학의 발전과정이 담겼다. 철학과 종교, 과학 등 분야를 넘나든 초기 근대 사상가들은 파문과 수감, 죽음을 불사하고 권위에 도전했다. 전통과 관습을 거부하고 우주와 사회, 인간을 새로운 시각으로 탐구했다. 192쪽. 1만8000원

붉은 왕조

파스칼 다예즈-뷔르종 지음/김주노·원용욱 옮김/중민출판사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술직 화법’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6~7일 열린 전국 당 초급선진 일꾼대회에서 김 위원장은 “수령의 혁명 활동과 품모를 신비화하면 진실은 가리게 된다”고 했다. 2017년 신년사에서 그는 “능력이 따라서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자책 속에서 지난 한 해를 보냈다”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책은 북한에 관한 4가지 수수께끼를 다룬다. 464쪽. 1만9000원

호텔 숙박도 ‘가심비’가 트렌드 내게 맞는 패키지 골라 떠나요!

호텔업계가 다양한 콘셉트의 실속형 패키지를 선보이고 있다. ‘호텔은 비싸다’는 편견을 깨고, 가격 대비 알찬 구성으로 고객을 끌어당기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컨싱턴호텔 여의도(이하 컨싱턴)에서는 혼자서도 실속 있는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나홀로 스테이크이션’ 패키지를 오는 6월 30일까지 선보인다.

이 패키지는 세금을 포함해 주중(일~목) 10만원, 주말(금~토) 12만6000원부터다. 10만원대의 저렴한 가격에 ▲객실 1박 ▲스시&그릴 라이브 다이닝 브로드웨이 조식 1인 ▲헬로판다 힐링키트(1세트)가 포함됐다. 객실은 디럭스 또는 프리미어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컨싱턴 측은 “나홀로 스테이크이션’ 패키지는 1인족, ‘혼족’들을 위해 불필요한 혜택은 덜고, 꼭 필요한 혜택으로만 구성된 패키지”라며 “멀리 떠나지 않고도 가까운 도심에서 아늑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실속형 상품이다”고 말했다.

노보텔 엠베서더 서울 강남(이하 노보텔 강남)의 ‘웍엔드 에스케이프(Weekend Escape)’ 패키지는 2박은 길고 1박은 아쉬운 이들을 위한 1.5박 콘셉트의 주말 패키지다.

이 패키지는 ‘가심비’를 적극 공략했다. 토요일 전용 패키지로, 일요일 체크아웃 시간을 오후 8시까지 대폭 늘렸다. 뷔페 레스토랑 더 스퀘어에서의 조식은 성인 2인을 포함해 부모 동반 자녀(만 16세 미만) 최대 2인에게까지 제공한다.

최대 4인까지 즐길 수 있는 패키지인데다, 25만6700원(세금 별도)의 가격에 숙박, 조식, 온수풀 실내 수영장, 피트니스 이용 혜택까지 더해진 만큼 반응이 좋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노보텔 강남의 또 다른 실속형 패키지인 ‘이스케이프 투 그린(Escape to Green)’은 ‘가심비’까지 공략한다. 친

환경 콘셉트를 바탕으로 호텔에서의 건강한 하루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가격은 15만5000원(세금 별도)부터다.

이 패키지를 이용하면 사전 요청시 피트니스 전문가의 헬스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슈퍼리어 객실 선택 시 뷔페 레스토랑 더 스퀘어에서의 2인 조식과 사우나 무료 이용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롯데시티호텔의 ‘스프링 블로섬(Spring Blossom)’ 패키지나 L7호텔의 ‘스프링 인 L7(Spring in L7)’ 패키지 도 주목 할만 하다.

‘혼족’ 위한 1박 10만원대 패키지 짧은 1박보단 주말 1.5박도 인기 ‘뉴트로·봄’ 트렌드 맞춘 구성도 오케스트라 공연까지 ‘프리미엄’

‘스프링 블로섬’ 패키지는 전국 6곳의 롯데시티호텔(마포, 김포공항, 제주, 대전, 구로, 명동)에서 5월 31일까지 예약 가능하며, 체크인오는 19일부터 가능하다.

이 패키지에는 객실 1박과 함께 스타벅스 시즌 한정 텀블러와 기프트 카드 1만원권이 포함됐다. 롯데시티호텔 구로를 기준으로 주중 10만원, 주말 12만원(세금 별도)부터 예약할 수 있다.

L7의 ‘스프링 인 L7’은 L7강남 기준으로 주중 14만 원, 주말 15만5000원(세금 별도)이다. 오는 5월 31일까지 예약 및 투숙이 가능하다. 객실 1박을 비롯해 아쿠아리움 티켓 2매, 안나수이 메이크업 어메니티 세트가 증정된다. 두 개 패키지 모두 롯데호텔 무료 멤버십인 롯데호텔 리워드(LHR) 회원에게 예약 시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노보텔 엠베서더 서울 독산은 뉴트

로 콘셉트의 ‘뉴트로하게 즐겨 봄’ 패키지를 오는 5월 31일까지 선보인다.

이 패키지에는 객실 1박과 함께 뉴트로 감성을 즐길 수 있는 추억의 상자가 제공된다. 요요, 아이스크림 펀치 완구, 아폴로, 호루라기 등 70년대부터 90년대에 즐겨 놀고 먹었던 추억의 물품이 상자 안에 들어 있다.

가격은 9만5000원(세금 별도)이다. 추억의 박스 외에도 휘트니스, 실내 수영장, 사우나는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어 도심 속 나들이를 즐기기에 제격이다.

경원재 엠베서더 인천이 5월 31일까지 선보이는 ‘더 드림(The Dream)’ 패키지는 한옥 호텔에서의 봄 나들이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 패키지에는 객실 1박, 성인 2인 조식, 미니바 아이템이 포함됐다. 특히, 객실 내에 쾌적한 공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공기 청정기와 가습기를 설치해두고, 대형 편백나무 욕조를 이용할 수 있다. 가격은 19만9000원(세금 별도)이며, 엠베서더 클럽 회원의 경우 객실 이용 요금의 10%를 적립해주는 더블 포인트 혜택이 제공된다.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는 LA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공연 티켓을 포함한 패키지를 선착순 5객실 한정 40만 원(세금 별도) 선보인다.

이 패키지에는 16일 클럽 프리미어 룸 1박 숙박과 클럽 인터컨티넨탈 라운지 무료 이용(2인 기준) 혜택이 포함됐다. 객실은 일반 객실 대비 1.5배정도 넓으며, 라운지에서는 시간대별로 조식, 애프터눈 티 세트, 칵테일 아워 등을 즐길 수 있다.

무엇보다 17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LA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100주년 기념 페스티벌 ‘존 윌리엄스 영화음악 콘서트’ R석 티켓 2매(30만원 상당)가 함께 제공된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시와 사진이 있는 아침

민들레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 바람은 차라리 회초리 같았지

/고흥곤 작



1 노보텔 엠베서더 서울 강남의 ‘웍엔드 에스케이프(Weekend Escape)’ 패키지. 2 L7호텔의 ‘스프링 인 L7’. 3 컨싱턴호텔 여의도 프리미어 객실. 4 노보텔 엠베서더 서울 독산의 ‘뉴트로하게 즐겨 봄’ 패키지. 5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의 ‘LA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패키지. /각사